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2 SEPTEMBER
Vol.236

휘영청 밝은 보름달처럼
빛나는 계절, 가을

삼정 KPMG

COVER STORY

찬란히 아름답게 빛나는 가을



Autumn is here!

어느덧 가을의 문턱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 그리고 적당한 햇살이,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 계절을 맞이하고 있나요?

밝게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가을도 풍성하고 행복하게 빛나면 좋겠습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ONTENTS

SEPTEMBER 2022 Vol.236

삼성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People First I 16

스마트 오피스 오픈,
회의실 명칭은 자녀 이름으로!

People First II 18

신입 회계사 오픈 하우스 개최

삼정인의 하루 20

새내기 컨설턴트 V-log 공개

인재양성소 22

2022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 GEP 13기 우수자 시상식 개최

삼정인터뷰 26

차세대 여성 리더,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레벨 업

이동규의 두줄칼럼 28

언품(言品)

心 Care 30

웃음 뒤의 힘든 얼굴, '가면성 우울'
나의 진실한 감정을 마주하기 위해서

Samjong News 32

'제7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
자문교수단' 위촉식 개최 외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탈중앙화 기술 블록체인과 Web 3.0으로의 진화

06 Market Reader

글로벌 M&A로 본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

08 Team Story

ESG 공시기준 자문 전문가 조직,
Audit ESG CoE팀

10 Client+

변액보험 리딩컴퍼니, 미래에셋생명
'은퇴시장 선구자'에서 '디지털 보험사'로

12 Expert's Advice

확대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그 투자 기회는?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탈중앙화 기술 블록체인과 Web 3.0으로의 진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1998년에 처음으로 제안한 Web 3.0은 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지능적인 인터넷 환경을 의미하는 ‘시맨틱 웹(Semantic Web)’이었다. 최근 Web 3.0의 개념은 더욱 확대되어,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며,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나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주도 및 통제할 수 있는 제3세대 웹 환경을 의미한다.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화된 인터넷 환경의 문제점과 Web 3.0의 부상

Web 1.0은 1980년대 후반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시기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게시된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점에서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상호작용이 배제된 소수의 콘텐츠 제작자가 제공하는 ‘읽기’만 가능했다.

그 후 ‘사용자 참여 및 상호작용 개선’에 중점을 둔 Web 2.0이 인터넷 변화와 성장을 이끌었다. Web 2.0 시대에는 사용자에게 고유 계정(개인ID)에 기반한 참여 환경이 제공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웹 생태계에 대한 플랫폼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집중되고 중앙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가 폐쇄적·독점적으로 관리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문제·정보유출 등도 Web 2.0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탈중앙화 방식의 Web 3.0 생태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Web 3.0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소수의 플랫폼이 독점하는 인터넷 환경을 넘어 네트워크 참여자인

Web 3.0과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

Web 1.0:

Web 1.0은 온라인 기반 '정보'를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온라인 시대'를 탄생시켰다.

Web 2.0:

Web 2.0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용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다.

Web 3.0:

Web 3.0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를 통해 '개인의 데이터·온라인 콘텐츠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

Source: Sam Wouters, SK증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개인이 중심이 된다. 아울러, 개인이 데이터 주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며, 중앙화된 권력과 통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o Web 3.0 구현의 중추적 기술, 블록체인

Web 3.0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는 Web 2.0에서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사용자의 신뢰 및 투명성, 온라인 콘텐츠·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집중된다. 이에 Web 3.0은 정보의 주체인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소유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탈중앙화 형태의 웹 생태계로 정의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거래정보를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검증·관리함에 따라, 중앙화된 기관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불필요해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블록체인은 거래기록 및 증명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데이터 저장·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적합한 기술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코인·대체불가토큰(NFT)은 고유한 원본 및 소유권을 기록하고 증명해 가치를 부여하고, 온라인 콘텐츠·데이터에 대한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이에 Web 3.0이 Web 2.0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인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데 있어, 블록체인은 중추적인 기술로 여겨진다.

o Web, 진화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다!

Web 3.0으로의 전환은 아직 기술의 확장성, 표준화된 상호운용성 부재 등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Web 3.0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인프라를 통해 기존의 중앙화된 인터넷 생태계를 변모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향후에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Web 3.0은 인터넷 사용자와 디지털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재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도 방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자산,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등을 통해 초기 단계의 Web 3.0 모습을 일부 목격할 수 있는데, 아직 Web 3.0의 진정한 잠재력을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동향 및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Web 3.0으로의 전환이 불러올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인터넷 환경인 Web 3.0에 대한 비전은 과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는 웹 생태계 진화의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으며, Web 3.0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CONTACT US

Digital본부
조재박 부대표
Tel. 02-2112-7514
E-mail. jaeparkjo@kr.kpmg.com



경제연구원
곽호경 수석연구원
Tel. 02-2112-7962
E-mail. hokyungkwak@kr.kpmg.com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M&A로 본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

미래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까?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미래자동차 시장의 발전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M&A 동향을 토대로 미래차의 대표 격인 전기차와 자율주행 생태계를 살펴본다.



○ 전기차·자율주행 시장은 생태계로 확장 중

2022년 3월 자동차산업 시장조사기관 LMC Automotive 발표에 따르면 2019~2021년까지 순수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시장별 연평균 성장률이 각 65.3%, 47.2%, 47.5%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장도 연평균 41.0%의 성장률로 급격히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의 발전은 단순 차량 제조를 넘어 판매, 주행, 서비스를 아우르는 생태계 관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인프라, 서비스 등 생태계 성숙도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완성차 제조사도 인프라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등 생태계 선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를 이끄는 6대 기업군과 투자 동향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성하는 6대 기업군으로는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와 신생 완성차 제조사가 있다. 이외에 Tier 1 공급업체, 차량용 반도체·OS 기업, 배터리 제조사도 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대 기업군의 투자 동향을 토대로, 이들이 자율주행 기술 확보, 전기차 제조를 위한 비즈니스 전환, 배터리 역량 분야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투자 사례는 현대자동차가 있다.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2020년 애프티브와 함께 자율주행 전문 업체인 모셔널을 설립한 바 있다. 중국의 신생 전기차 제조사이자 배터리 제조사인 BYD는 2022년 2월 라이다 인식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보센스에 투자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글은 빅테크 중 가장 먼저 자율주행 사업에 진출하면서 웨이모를 설립했고, 2022년 3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하여 자사 직원을 출·퇴근시키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ier 1 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는 2021년 경영실적 보고서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젠다르에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그래픽 반도체의 강자이자 자율주행을 위한 고성능 반도체를 제공하는 엔비디아는 딥맵을 2021년에 인수하면서 자사 자율주행 솔루션에 딥맵의 고정밀 지도·초정밀 실시간 위치 확인 솔루션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제조를 위한 비즈니스 전환 및 배터리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 선점을 위한 6대 기업군의 투자 동향¹⁾>

|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 이슈별 대응 방향 |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 6대 기업군 | 전통적 완성차 제조사 | 신생 완성차 제조사 | 빅테크 | Tier 1 ²⁾ 공급업체 | 차량용 반도체 및 OS | 배터리 제조사 |
|--------------------------|---------------------|-------------|------------|-----|---------------------------|--------------|---------|
| 전기차 제조로 비즈니스 전환 | | 14% | 10% | 25% | 22% | 3% | 15% |
| 전기차 배터리 역량 확보 | | 12% | 20% | 1% | 5% | 4% | 50% |
| 전기차·자율주행 인프라 Biz. 진출 | | 12% | 6% | 5% | 2% | 1% | 4% |
| 전기차 관련 애프터마켓 조성 | | 4% | 5% | 1% | - | - | 4% |
| 자율주행 단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 역량 확보 | | 37% | 36% | 38% | 36% | 36% | 11% |
| 소비자 안전성 이슈 해소 | | 2% | - | - | 1% | - | - |
|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 | 4% | 7% | 9% | 2% | 4% | 2% |
| 차량용 반도체 고도화 및 포트폴리오 확대 | | 2% | 8% | 4% | 7% | 30% | 13% |
| 커넥티비티 등 차량용 SW 관련 니즈 대응 | | 12% | 7% | 18% | 25% | 21% | 1% |

Note 1) : 각 기업군별 주요 기업의 2017.01.01~2022.05.31 내 안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거래건수의 합을 전체로 두고 피투자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분류하여 대응 방향별 거래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출 후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투자 내역은 Pitchbook 기준

Note 2) : 2020년 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에서 10위 내 선정된 기업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활발하다. GM과 혼다는 전기차 합작 법인을 신설해 2027년부터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배터리 원재료 확보부터 배터리 제조 역량 내재화까지 배터리 전반에 투자했다. 중국의 빅테크 중 하나인 바이두는 지리자동차와 합작으로 지두자동차를 설립한 바 있다. Tier 1 공급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2021년 LG전자와 합작해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했고 2022년 4월 멕시코에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은 글로벌 리튬 리소스에 투자하면서 희유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 배터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6대 기업군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우려하는 요소 중 2위가 긴 충전 시간, 5위가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

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테슬라는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구축한 바 있고, 이는 테슬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자율주행 전용 기반 시설의 경우 도로건설뿐만 아니라 주차 시설 등 다양한 하위 시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기업은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솔루션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자율주행 기술 인증 제도 구축과 함께 법규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정부의 일관된 지원이 시너지를 이뤄 미래자동차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할 때이다.

C O N T A C T U S

Deal Adv2본부
서무성 전무
Tel. 02-2112-7639
E-mail. mooseongseo@kr.kpmg.com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ESG 공시기준 자문 전문가 조직, Audit ESG CoE팀

삼정KPMG는 지난 4월 1일, 지속가능보고서팀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Audit ESG CoE팀을 신설했다. 기업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ESG 정보공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최고의 ESG 공시기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Audit ESG CoE팀을 만나본다.



○ ESG 2.0 시대, 신뢰성 갖춘 ESG 정보공시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최근 ESG 정보공시 및 인증 시장에서의 IFRS 재단 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으로 다양한 ESG 보고기준이 단일화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SEC 기후강화법안, 유럽의 CSRD(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 등 국가별로 ESG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법적 책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신뢰성 있는 ESG 정보생성 및 보고를 위한 정보공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재무보고와 같은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통한 전사적 참여보다, 외부 자문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무 일관성의 결여, 불명확한 R&R, 산재된 정보원천, 데이터 임의가공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보고서 내 데이터의 신뢰성 저하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ESG 전략 수립에 집중했던 ESG 1.0 시대에서 현재는 이행의 단계의 ESG 2.0 시대로 이전하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보고 기준에 부합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ESG 정보공시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ESG 정보공시체계 구축에는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고 최소 2~3년의 구축 및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2025년 공시의무화를 고려해 빠르게 이행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 국내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정보공시/인증 서비스 제공해

삼정KPMG는 법인 내 감사부문, 컨설팅, 매각자문 등 모든 Function을 포괄하는 ESG비즈니스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Audit ESG CoE팀은 ESG비즈니스그룹 내에서 감사본부의 ESG 정보공시와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udit ESG CoE팀은 전체 감사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시장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감사임원실로 이동했다. 현재 총 7명의 인원들이 소속되어 지속가능보고서발간 및 인증, R&D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개발, ESG 교육 및 각종 세미나 등의 대외활동을 수행 중이다.

Audit ESG CoE팀은 정보공시와 인증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ESG 전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ESG 전문가들과 감사본부 내 산업별 전문가들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별 특수성에 유연하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에서 가장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정보공시 및 객관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ESG비즈니스그룹과 연계해 ESG 전략수립, ESG 이행, 정보공시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Audit ESG CoE팀 주요 서비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자문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 보고서 기획 및 작성 자문 업무
- TCFD 등 특수목적 보고서 작성 자문 등

인증 서비스

- 인증사전진단 서비스 (KPMG Ready 4 assurance 서비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
- ESG채권 인증
- 온실가스 인증
- PRI 등 이니셔티브 보고서 인증 등

외부평가 대응 서비스

- MSCI, DJSI, KCGS 등 국내외 외부평가 대응 서비스

가이드스 및 교육 제공

- ESG 정보공시를 위한 정책, 프로세스, 시스템 등 구축 자문
- SEC 기후법안, ISSB 기준서, EFRAG 등 진단 및 정보공시체계 구축 등

ESG 전략 자문 서비스

- 정보공시체계와 관련한 ESG 전략 및 중장기 과제 자문 서비스

ESG 정보공시 및 인증에서 업계 No.1이 되기까지!

Audit ESG CoE팀은 ESG 정보공시 및 인증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삼정KPMG가 ESG 전략 분야뿐만 아니라 ESG 정보공시 및 인증 분야에서도 업계 No.1이 되도록 ESG 정보공시 및 인증시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ESG 정보공시와 인증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ESG 전략과 연계하여 중소형 기업에 대한 ESG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R&D 활동을 통해 전사적 차원에서 산업별 ESG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체계적인 인증방법론으로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외의 ESG 인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Audit ESG CoE팀에 대한 소개와 각오 한마디!

김시우 상무

siwookim@kr.kpmg.com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ESG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연구, 업무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ESG 정보공시 및 인증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한 Trusted Advisor가 되겠습니다.

김영곤 Director

ykim144@kr.kpmg.com



국제 사회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가이드가 대폭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 내부적으로 사회 및 환경 가치 향상 활동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ESG 공시 및 경영 체계 구축에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기업들의 투명성 및 진정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선도적인 ESG 공시 및 경영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다은 Senior

daeunsh@kr.kpmg.com



ESG 정보공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규제기관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ESG 공시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수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 팀은 고도화되는 글로벌 ESG 공시 법안 및 요구 사항을 빠르게 파악해 내부 데이터 관리부터 공시 및 인증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ESG 여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리딩컴퍼니, 미래에셋생명 '은퇴시장 선구자'에서 '디지털 보험사'로

2005년 새롭게 출발한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변액보험 시장의 리딩컴퍼니로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변액보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으로 금융솔루션을 제안하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은퇴 후의 삶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스마트 경영, 업무 환경을 이뤄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은퇴시장 선구자에서 디지털 보험사로 나아가는 미래에셋생명을 소개한다.

행복한 은퇴설계의 시작 -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 2005년 새 출발 후 초고속 성장 이어와

지난 2005년 6월, 미래에셋그룹은 당시 SK생명을 인수해 미래에셋생명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미 보험 침투율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 가치 아래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혁신을 지속해왔다.

성장은 외형적 수치로 나타나 출범 당시 4조 7천억 원대의 총자산은 5년 만인 2010년에 12조 원대로 초고속 성장했고, 2022년 상반기 40조 원을 넘어섰다. 2015년 7월에 생보사 네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2018년 PCA생명을 인수했다. 해외 시장으로도 눈을 넓혀 베트남에 진출, 미래에셋프레보아생명을 출범했다.

○ '변액보험 리딩컴퍼니' 경쟁력 구축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변액보험 시장의 리딩컴퍼니로 꼽힌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쟁력인 '글로벌 분산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MVP펀드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변액보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변액보험 리딩컴퍼니'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2014년 4월, 업계 최초의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인 글로벌 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펀드를 출시하며 국내 변액보험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로 올라섰다. MVP는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변액보험 펀드 포트폴리오로서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분기별 펀드 선택 비중을 담고 있다. 기존의 변액보험이 계약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소극적 운용의 개념이었다면, MVP펀드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등 변액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디지털 기반의 차별화된 성장동력 확보...
'종이 없는 보험사' 탈바꿈**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년 가까이 꾸준한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경영 및 영업환경을 구축해왔다. 2014년 4월, 업계 최초의 온라인 변액보험을 출시하며 온라인보험 특유의 높은 투자 가성비와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에 입각한 장기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고객프라자 등 고객이 내방해 업무를 보는 창구에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업계 최초로 보험과 대출 등 업무 문서를 모두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전자증명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모바일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등 미래에셋생명은 종이 없는 보험회사로 탈바꿈했다. 2022년 3월부터는 보험사 최초로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 AI(인공지능)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담사의 감정노동 소모와 불안판매를 줄이고, 고객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 **봉사와 기부로 사랑실천 앞장**

미래에셋생명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구호 아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은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서별 봉사단으로 편성돼 매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에는 임직원들의 참여형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계형 물품 지급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방역 마스크, 북 커버, 소아암 어린이 돕기 향균키트 등 필수품을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도 꾸준히 진행한다. 매월 임원들의 급여 1%를 기부하는 '미래에셋 1% 희망 나눔'과 2008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래에셋 기부운동 사랑합니다' 등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적립한 기부금을 미래에셋박헌주재단에 지원했다.

1.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진행한 현충원 봉사
2. 한강숲 나무심기
3. 위기가정아동 지원을 위한 북커버 전달
4. 곡물짚질팩 제작 전달
5. 미래에셋생명 사옥



확대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그 투자 기회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020년 4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셀프메디케이션 트렌드 부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 면역 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점차 확대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그 투자 기회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Q1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투자 동향은 어떤가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며 기업들은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M&A(인수·합병) 및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는 물론, 식품업계, 제약·바이오, 화장품 등 유사업종들도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물색하며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약사 대원제약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 및 별도 생산공장을 구축 중인 극동에치팜 지분을 83.5% 인수하며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대한제분 역시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업체 헬스밸런스 인수에 참여해 관련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자도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플랫폼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행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2 그렇다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첫째, 제품·원료 기술력이 시장 선점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원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입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수 기업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 니즈가 세분화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전문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사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각되는 개별인정형 원료 분야에 집중하며 경쟁우위를 다져 나가야 합니다.

둘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타깃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비스포크(Bespoke) 방식, 즉 개인의 영양상태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선별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소비자에게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DTC(소비자직접의뢰, Direct to Customer) 방식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도 적지 않게 눈에 띄입니다.

셋째,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아시아·북미 등 주요 지역으로의 진출을 검토하며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현지 보건당국 혹은 의약품 관리국으로부터 제조·품질관리 관련 인증·허가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Deal Adv6 이재한 상무

Tel. 02-2112-7062

E-mail. jlee66@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7월 4일 게재된 한경CFO Insight "확대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투자 기회 점검"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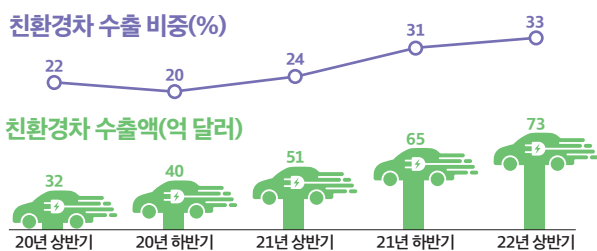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캠페인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탄소제로를 의미하는 CF100이란 용어와 달러의 강세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에 대해 배워본다. 이어,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살펴본다.

상반기 승용차 수출 전년 대비 2.5%↑... 친환경차 수출은 '역대 최대'



코로나19, 차량 반도체 수급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확대되고 있다. 7월 29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및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222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했다. 이중 친환경차 수출액이 72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급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체 승용차 수출액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상반기 기준 2020년 21.6%, 지난해 23.5%, 올해 32.7%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차종별 비율은 ▲하이브리드(12.6%) ▲플러그인하이브리드(4.0%) ▲전기차(16.0%) 순이다.

반기별 친환경차 수출 추이



CF100

(24/7 Carbon-Free Energy)



전기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하든 24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전력의 탈탄소화이며, 풍력, 태양광, 수력 외에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등을 통한 전력도 포함된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구글과 국제연합 유엔 에너지, 유엔 산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 등이 함께 만든 캠페인이다. CF100은 전력 부문에서 탄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과 차이가 있다. 구글의 경우에는 2017년 RE100을 달성한 뒤, 2018년부터 미국 일리노이주 데이터센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상 전력거래약을 체결하고 CF100을 이행 중이다.

킹 달러

(King Dollar)



달러의 강세 현상을 이르는 말로, 올해 들어 국제금융 시장에서 드높여진 달러화의 위상을 의미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위협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엔화 대비 가치는 24년 만에, 유로화 대비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로 뛰었다.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2%가량 치솟았다.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 가치도 10% 이상 상승했다. '킹 달러' 현상은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이 건재(健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Happy workplace



People First I

스마트 오피스 오픈,
회의실 명칭은 자녀 이름으로

16

People First II

신입 회계사 오픈 하우스 개최

18

삼정인의 하루

새내기 컨설턴트 V-log 공개

20

인재양성소

2022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 GEP 13기
우수자 시상식 개최

22

삼정인인터뷰

차세대 여성 리더,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레벨 업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언품(言品)

28

Samjong News

‘제7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
자문교수단’ 위촉식 개최 外

心 Care

웃음 뒤의 힘든 얼굴, ‘가면성 우울’
나의 진실한 감정을 마주하기
위해서

30

32

스마트 오피스 오픈, 회의실 명칭은 자녀 이름으로!



삼정KPMG는 인재존중 문화를 위한 계획으로 2022년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내 모든 업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에는 GFC 9, 10층에 스마트 오피스를 오픈했다. 스마트 오피스를 오픈하며, 회의실 명칭도 구성원들의 자녀 이름으로 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회의실 명칭 이벤트에 선정된 구성원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 스마트 오피스 134개 회의실 명칭 자녀 이름으로 선정, 구성원들과 가족들에 자긍심 부여

삼정KPMG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노력으로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업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7월 18일에 GFC 9, 10층 스마트 오피스를 오픈했으며, 하반기에는 GFC 11, 27, 29층 업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이번 스마트 오피스 구축으로 다양하고 여유 있는 업무 좌석과 라운지, 그리고 134개의 회의실이 마련된다. 삼정KPMG는 협업하는 공간인 회의실에 보다 소중한 의미를 담고자, 134개의 모든 회의실에 구성원들의 자녀 이름을 부여하는 회의실 명칭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직원 자녀 이름을 항공기에 부여하는 페덱스(FedEx)의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 전 세계 220개국을 운행하는 페덱스의 700여 대 화물기 이름은 Tyler, Evie, Meredith 등으로, 이는 페덱스의 직원 자녀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항공기 이름에 직원 가족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회사는 안전운항과 정시 배송에 대한 책임감을, 직원과 가족들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삼정KPMG 역시 구성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의실 공간을 자녀의 이름으로 정하고,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함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이벤트 결과 3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며 열띤 호응을 얻었다. 회의실 명칭 선정은 근로자 대표 7명, 스마트 오피스 TFT 7명이 심사로 나섰으며, 공정성을 위해 본부, 직급, 성명은 비공개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여 응모자들의 사연을 읽고,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한편, 삼정KPMG는 모든 스마트 오피스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 이후에 회의실에 자녀 이름이 선정된 구성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오피스 투어 및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녀 이름이 회의실 명에 선정된 소감은?”



“딸과의 기념사진이 벌써부터 기대돼요!”

제 딸 미나는 2020년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대유행한 그해 여름,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미나를 안전한 한국으로 보내야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기와 생이별해야 했지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귀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정KPMG에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꿈에 그리던 아기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미나와 저를 이어준 삼정KPMG 회의실에 아이 이름을 올리고 싶었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정 소식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벌써부터 미나와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을 것이 기대네요!



박혜경 Director (ADC)

“딸에게 일하는 곳을 소개할 수 있어 기뻐요!”

첫 직장이자, 15년간 근무 중인 우리 법인은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제 삶을 변화시킨 곳입니다. 우리 딸 역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제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한 법인에 딸 이름의 회의실이 생기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사물의 이치나 지식으로 두루 통달하여 슬기롭다’는 아이 이름의 의미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본인의 분야에서 널리 통달하여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꼭 당첨되어 아이에게 엄마가 일하는 곳을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선정되니 기쁩니다! 딸이 공부에 관심 없고, 회계사란 직업도 잘 몰랐는데 본인 이름의 회의실이 생긴다고 하니 본인도 회계사가 되어 엄마가 다니는 회사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김대훈 S.Consultant (MCS2)

“삼정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됐어요!”

‘People First’, 참 실천인 뜻깊은 공모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아이 이름은 로운인데요, ‘이로운’, ‘슬기로운’에서 가져온 이름과 같이 법인 내 많은 분들께서 슬기로운 회의를 통해 이로운 회의 결과를 도출하기 희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GFC 내 법인 공간이 모두 스마트 오피스로 바뀌고, 새로운 회의실 명칭에 아들 이름이 새겨지니 참으로 뿌듯하고 좋습니다! 로운이 이름의 회의실을 보며, 사용하며, 삼정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새로운 동기가 생겼네요! 그리고 SNS에 도배 한가득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아내, 우리 법인에 훌륭한 제도가 생겼다고 극찬하는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로운



박소은 Manager (IA)



실비아 & 이든

“의미 깊은 회사에 두 자녀 이름이 선정되어 기뻐요!”

오랜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택한 직장이 바로 삼정 KPMG입니다. 그리고 본사 근무 중 우연히 근처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두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어요. 이에 회의실 자녀 이름 이벤트에 더욱 의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고, 많은 지원자 중에 우리 두 자녀의 이름이 모두 선정되어 정말 기쁩니다. 두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본인들의 이름이 엄마 회사에 회의실 명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면 너무나 기뻐할 거 같아요!

정호현 S.Analyst (Deal Adv3)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아빠는 어디서 일해?” 라는 아이의 질문에 “아빠는 시안 회의실에서 일하지!”라고 답하면 “아빠는 회사에서도 시안이를 생각해”라는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해질 수 있겠다는 마음에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채택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이 이름이 회의실로 실제로 생겼다고 하니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5살 아인지라, 선정 결과를 말해줬을 때 크게 감흥이 없었으나, 연말에 있을 기념 촬영 시에 아빠 회사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 회사에 언제 가냐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뿌듯하네요!



우리 회사로 놀러 와~! 신입 회계사 오픈 하우스 개최



삼정KPMG가 신입 회계사 오픈 하우스를 개최했다. 신입 회계사 공채 시즌을 맞아,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삼정KPMG 스마트 오피스를 둘러보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2



3



4



5



6



7

People First II

○ 3회에 걸쳐 총 180여 명 방문,
스마트 업무 공간 둘러보며 추억 쌓아

삼성KPMG가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가족 혹은 지인과 함께 삼성KPMG의 스마트 오피스 공간을 둘러보고, 삼성KPMG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KPMG는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강남파이낸스센터(GFC) 8층, 2020년 28층,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GFC 내 삼성KPMG 모든 사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People First - 인재존중 문화를 추구하며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GFC 9, 10층의 스마트 공간이 오픈됐으며, 하반기에는 11층, 27층, 29층이 오픈될 예정이다.

이번 오픈 하우스 행사는 8층 은하수 라운지에서 진행됐으며, 총 180여 명이 3회에 걸쳐 삼성KPMG 스마트 오피스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법인의 리크루팅 TF의 소개로 8층 및 새롭게 오픈한 10층의 스마트 오피스를 둘러보며 가족, 지인들과 삼성인이 근무하는 업무 공간을 경험했다.

또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8층 은하수 라운지에는 참가자들이 즐길 케이터링 서비스도 마련되어,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리크루팅 TF 리더의 소개로 삼성KPMG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는 포토 부스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스티커 사진도 촬영하고 이를 기념했다.

1. 2022년 삼성KPMG 신입 회계사 오픈 하우스 행사 현장 2. 오픈 하우스에서는 참가자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도 마련됐다 3. 리크루팅 TF 강승미 상무가 삼성KPMG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4. 현장에는 케이터링 서비스도 준비되어 맛있는 식사도 즐길 수 있었다 5. 6. 행사 참가자들은 스마트 오피스 곳곳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픈 하우스 어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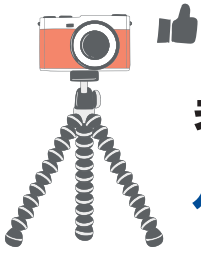
전예송 Analyst (Deal Adv5)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 곳을 궁금해하셨는데, 마침 이번 오픈 하우스 행사 소식을 듣게 되어 부모님과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법인의 스마트 오피스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였고, 리크루팅 TF 멤버분들이 저와 부모님을 에스코트하며 스마트 오피스 모습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식사도, 행사 진행도 모두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되어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제가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굉장히 뿌듯해하셨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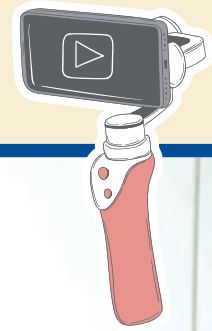
김상현 Associate (ICE2)

오픈 하우스에 부모님과 형, 그리고 여자친구가 참석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제 졸업식과 행사 일정이 겹쳐서 졸업식 참석 후 모두 참가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셔서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잘 없는데, 운 좋게 일정이 딱 맞았어요. 행사를 통해 법인에 대한 소개와 근무 환경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였고, 가족들과 함께 포토 부스에서 사진도 찍고, 대화의 꽃도 피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 번쯤 부모님께 법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개할 수 있었고 부모님 역시 굉장히 흡족해하셔서 저 스스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컨설턴트 라이프 엿보기! 새내기 컨설턴트 V-log 공개

컨설턴트 공채 시즌이 시작됐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 컨설턴트들을 위해 컨설턴트의 하루를 엿보려 한다. 삼정KPMG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올해 1월에 입사한 신준호 컨설턴트의 일상을 만나보자.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름 신준호

나이 28

본부 RCS (Risk Consulting Service)

취미 여행, 게임(LoL), 혼코노, 맛집 탐방, 탁구

요즘 최대 관심사 재테크, 미래 커리어 설계

예비 컨설턴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 V-log를 보고 조금이라도 가슴이 뛰었다면, 컨설턴트 공채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가진 능력이 컨설팅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도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Da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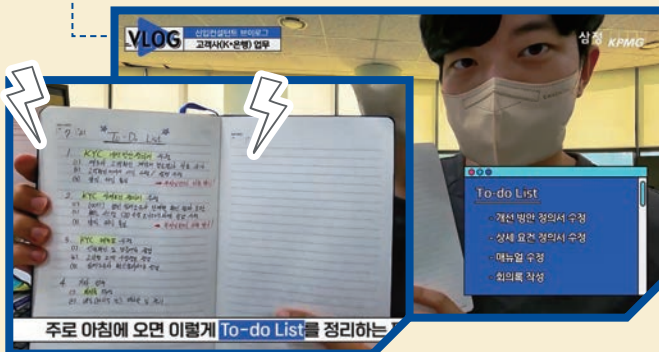
고객사 출근

‘대망의 프로젝트 마무리 날!’

AM 8:30

업무를 위한 To-do List 작성하기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날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놓친 것은 없는지,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지 미리 체크하죠~!”



AM 10:45

회의 진행 with 고객사

“컨설팅을 진행하며 도출된 개선 방안, 전산 상세 요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어요. 산출물에 대해 설명하며 어떤 것을 추가하고, 어떤 것을 제외해야 할지 논의했답니다!”

PM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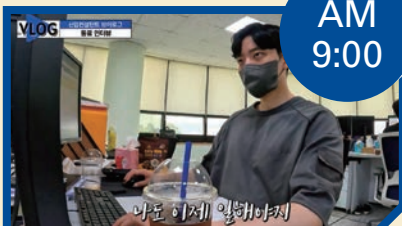
회의 후 고객사 사무실로 이동

“고객사 본사 건물에서 택시를 타고 고객사 사무실로 이동해, 오후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 전에 밥도 먹어야겠죠!”

업무 시작

“프로젝트 막바지이기에 기존 자료를 수정해야 할 일이 많아요! 오늘은 프로젝트 개선 방안 정의서와 상세 요건 정의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곧 있을 회의도 준비해야 해요.”

AM 9:00



삼정인의 하루

PM 1:00

업무 진행

“휴~바빠다~! 바빠!”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또 매뉴얼도 수정해야 해요!”



PM 6:00

프로젝트 마무리! 내일부터는 본사로 Go!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날! 프로젝트 팀원들이 짐을 챙기고, 이제는 내일부터 다시 삼정KPMG 본사 강남파이낸스센터로 출근합니다.”



Day 2

본사 출근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AM 8:30

발걸음도 상쾌한 GFC로의 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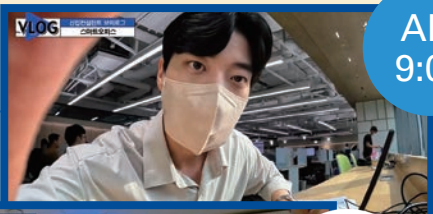
“우리 법인은 스마트 오피스로 호텔링 좌석제를 운영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원증을 태그하고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전망이 훤히 보이는 창가 쪽으로 좌석을 선정했어요!”



AM 9:00

업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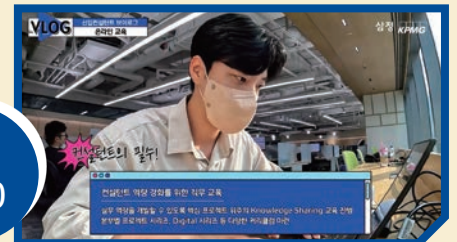
“다음 프로젝트 전까지,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해요. 오후에 있을 사전 스터디 내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PM 12:00

점심 식사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바로 점심 타임이죠~! 매니저님이 사주시는 점심은 역시 꿀맛이네요~! 하하~”



PM 1:30

사전 스터디 회의

“회의실에서 사전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매니저님의 리뷰를 통해 스터디를 마무리했어요~!”

PM 3:30

에너지 충전을 위한 휴식 타임!

“스마트 오피스 각 층마다, 휴게 라운지가 있어요! 아침, 오후, 저녁에는 떨어진 당을 채워줄 다양한 간식이 마련되어 있죠. 커피 머신으로 커피도 내려 마시며, 휴식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PM 4:00

Trusted Advisor가 되기 위한 배움의 시간!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수강하고 있어요~! 우리 법인에서는 실무 역량을 개발하도록 핵심 프로젝트 위주의 Knowledge Sharing 교육을 진행하고, 본부별 프로젝트 시리즈, Digital 시리즈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M 6:00

퇴근 및 정리

“오늘도 열심히 일했네요~! 퇴근을 앞두고 하루 업무를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합니다.”



2022 신입 컨설턴트 V-log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2022 신입 컨설턴트 V-log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수 인재 집합소!

2022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 GEP 13기 우수자 시상식 개최

삼정KPMG는 인재들을 격려하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의 주니어 집중 프로그램인 Global Elite Program(GEP)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삼정인을 위한 시상식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8월에 개최된 시상식 현장 소식과 함께 우수자들의 미니 인터뷰를 담아봤다.

○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54명 배출

삼정KPMG가 '2022 한국공인회계사회 수습 1년 차 기본실무 및 수습 2년 차 외부감사실무 종합평가시험'에서 5% 이내 성적을 거둔 54명의 회계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1년 차 기본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는 법인 대상자 324명이 응시하여, 33명(10.2%)이 상위 5% 이내의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1년 차 기본실무 결과 10등 안에 든 최상위 성적우수자에 삼정인 8명이 차지하며, 법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2년 차 외감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는 법인 대상자 279명이 응시하여, 21명(7.5%)이 상위 5% 이내의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올해 2년 차 외감실무 전체 10등 이내의 최상위 성적 우수자로 삼정인 5명을 배출했다.

2022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1년 차 기본실무]

권혁중(B&F2), 김대훈(ICE1), 김민수(IGH), 김준수(ICE1), 김찬영(ICE1), 김해일(IM3), 김현규(IM3), 도덕현(IM3), 문상혁(CM1), 박건희(IM4), 박정원(Deal Adv1), 배문규(Deal Adv7), 백승미(ICE3), 송채림(Deal Adv2), 신성호(Deal Adv6), 신윤수(B&F3), 신윤지(B&F3), 양지혜(IM2), 양희철(Deal Adv7), 여다은(ICE3), 윤재호(ICE2), 이석현(ICE3), 이성은(Deal Adv7), 이정우(CM1), 이지수(IT Audit), 정다운(Deal Adv2), 정다현(Deal Adv5), 정슬기(IGH), 정희진(Deal Adv4), 최범열(B&F2), 최예슬(ICE3), 최정호(IGH), 한동기(Tax1)

[2년 차 외감실무] * 2년 연속 성적우수자

김경오*(IM2), 김범수(ICE3), 김성진*(Deal Adv1), 김윤석(IM2), 김주현(Deal Adv2), 박성훈*(Deal Adv6), 서재형*(Tax3), 양지원(IM4), 오승원*(B&F1), 이나경(Deal Adv7), 이신욱(B&F3), 임하윤(Deal Adv5), 전병길(CM2), 정동하*(Deal Adv1), 정형석*(IGH), 조예주(Tax3), 지성찬(Tax2), 진승희(IM4), 최종찬(Deal Adv1), 홍민호(ICE2), 황지상(B&F3)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소감은?

최범열
Associate (B&F2)
- 기본실무 1위



이번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시험 당일에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 성적우수자로 뽑힐 것이라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상보다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출문제와 L&D에서 배포해준 퀴즈를 여러 번 풀어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법인 차원에서 3일의 공부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아울러, 이번에 시상식에서 상패와 포상금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선배 회계사님들, 동기들에게 업무를 진행하며 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는 저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송채림
Analyst (Deal Adv2)
- 기본실무 3위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아침부터 기분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동기들과 상사분들로부터 많은 축하 연락도 받고, 오랜만에 함께 점심도 즐기고, 축하를 받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적우수자로서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법인 차원에서 축하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점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가족이 이 소식을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포상금으로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춰 나가, 법인에서 인정받는 삼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2년 차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받아 한 번 더 영광스러운 시상식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요.

김성진
Analyst (Deal Adv1)
- 외감실무 4위



제가 가진 실력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면서도 과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주신 김진원 부대표님, 김형천 상무님, 박인욱 차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인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하병제 부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법인에서 수여한 근사한 상패와 포상금을 통해 격려와 축하를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팀 모두 함께 성장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삼정인이 되겠습니다.

최정호
Associate (IGH)
- 기본실무 3위



이번 결과는 좋은 환경들 덕분에 얻게 된 결과라고 생각되어, 주변 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시험 준비를 위해 본부와 팀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적우수자 시상식에 참여하신 회장님, 본부장님의 격려가 많은 응원이 되었고, 시상식에 참여한 다른 훌륭한 동료 회계사님들을 보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작년에 입사한 이후로 선배님들과 보람되고 즐거운 법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즐겁게 생활해서 팀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인정받고 싶습니다!



서재형
Associate (Tax3)
- 외감실무 3위



사실, 올해 시험이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져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스스로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본부의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험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본부의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법인 차원에서 상패 및 포상금을 전달하고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이 종합평가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로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시험 결과를 발판 삼아 향후 GEP 우수자에 선정되고 싶고, 많은 선배 회계사분들처럼 법인과 본부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 GEP 13기 우수자 54명 선정 ... 내년에 영국으로 연수 떠나

삼정KPMG는 주니어 집중 육성 프로그램 'Global Elite Program(GEP)'을 시행하며, 1~3년 차 주니어들이 직무역량, 글로벌 마인드, 전문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우수자들에게는 법인에서 주관하는 우수자 시상식 및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번 GEP 13기는 2019년에 입사한 공인 회계사 및 공채 컨설턴트로서,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한공회 연수, 직무교육 결과 및 업무성과를, 컨설턴트인 경우 업무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최종 54명을 GEP 우수자로 선발했다. 지난 8월 30일, 삼정KPMG 본사에서 'GEP 13기 우수자 시상식'이 개최돼, 우수자들은 김교태 회장의 시상으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편, GEP 13기로 선정된 54명 전원은 2023년 5월에 영국으로 2주간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GEP 13기 우수자 축하드립니다!”

[GEP 13기 우수자 명단]

김재현(B&F1), 신재상(B&F1), 이주연(B&F1), 고병관(B&F2), 박진용(B&F2), 이혜미(B&F2), 이동익(B&F3), 김성운(CM1), 박종혁(CM1), 오서영(CM1), 이강영(CM1), 최연주(CM1), 광동현(CM2), 김정현(CM2), 김성훈(ICE1), 주의진(ICE1), 정병열(ICE3), 노영주(IM1), 박재욱(IM1), 이호석(IM1), 강내현(IM2), 백두산(IM2), 한상윤(IM2), 현건재(IM2), 김기범(IM3), 김영균(IM3), 장지형(IM4), 신동훈(IGH), 전재민(IGH), 김진상(IT Audit), 이병록(IT Audit), 류정우(Tax1), 정준영(Tax1), 김상연(Tax2), 김아영(Tax2), 금다윤(Tax3), 민우영(Tax4), 김성현(Deal Adv1), 이하연(Deal Adv1), 박제홍(Deal Adv2), 유재원(Deal Adv2), 정상지(Deal Adv2), 고서영(Deal Adv4), 최종하(Deal Adv4), 윤현식(Deal Adv7), 조해린(Deal Adv7), 정민지(MCS1), 박혜림(MCS2), 양준호(RCS), 윤진민(RCS), 배성진(Digital), 서종민(Digital), 남궁연(Digital Tech), 정예라(SCG)

GEP 13기 우수자 선정 소감은?



나에게 한마디!

“긍정적 마인드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그리고 도움이 되는 회계사로 성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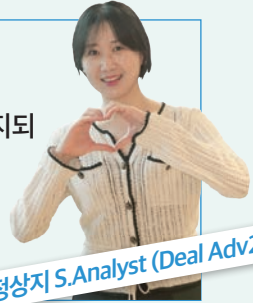
김영균 Senior (IM3)

예상치 못하게, GEP 우수자로 선정되어 축하받으니 매우 기쁘네요! 특히, 다가올 해 외연수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큼니다. 무엇보다 함께 고생하고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동료 및 선후배 회계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GEP 우수자 선정된 만큼 동료와 후배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업무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 모습이 후배분들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한마디!

“앞으로 업무에 성숙해지되
일에 무너지지 않기를,
자신감은 가지되
겸손함은 유지하기를!”



정상지 S.Analyst (Deal Adv2)

같은 팀에 지난해 GEP 12기 우수자로 선정되신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GEP 13기 우수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법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도록 지원해주신 이재현 본부장님, 김병두 상무님 그리고 팀원분들께 가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GEP 13기 우수자 선정은 소속된 팀과 하는 일에 애정을 가진 점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있어도 팀과 업무에 애정이 있으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선후배, 동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온 만큼 이제는 제가 보답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마디!

“주니어 과정 동안 고생 많았고
시니어 업무도 잘할 수 있도록
체력관리 잘하자~! 파이팅!!”



김영연 Senior (Tax2)

한공회 성적 상위 5% 이내에만 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GEP 우수자라도 선정되어서 놀랍기도 하고 기쁘네요!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신 우리 법인과 Tax2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Tax2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 업무 스킬을 터득해 스텝의 역할에서 벗어나 인차지 역할까지도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외 연수 기회인 S.Manager 승진까지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빨리 내년 5월에 유럽으로 떠나고 싶네요! 하하.



나에게 한마디!

“법인에서 3년간 쌓은 값진
기억과 경험을 앞으로도
잊지 말고 더 잘하자!”



박혜림 S.Consultant (MCS2)

저와는 멀게만 느껴지는 일이라 생각했던 GEP 우수자로 선정되어 기쁘고 한편으로 또 놀랐습니다. 저를 계속 이끌어 주신 전무님과 팀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도 더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따뜻한 기억이자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좋은 분들과 함께했기에 GEP 우수자라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GEP 우수자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팀원분들께서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 법인에서 동료 및 후배들에게 더 좋고, 뜻깊은 기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 여성 리더,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레벨 업

삼정KPMG는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 중이다. 올해로 5회 차에 접어든 FY22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Leading Self, ▲Leading People, ▲Leading Change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강점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여성 파트너들의 멘토링을 통해 그간의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법인 내 차세대 여성 리더들에게 참가 소감과 이를 통해 얻은 긍정적 변화에 대해 물어봤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어땀나요?”

◦ 강점 개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

교육은 저에게 “누구나 단점과 동시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점 보완보다는 장점 극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단점 보완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온 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단점에 집중함으로써 한없이 떨어지던 자신감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함께 일하는 팀(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그 점에 강점을 가진 선후배,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천을 통하여 제가 가진 강점으로 기여하고 성장하는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배 선생님들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유슬비
Manager
(Tax4)



이혜리
Manager
(Deal Adv7)

○ 리더십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긴 프로그램!

이번 프로그램에서 강점 찾기 세션이 인상 깊었어요. 리더십은 팀원을 관리하는 방법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강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원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것 역시 리더십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울러 리더의 마음이 건강해야 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리더로서 제 마음을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마음 관리를 통해 다른 팀원들과 시너지를 내고, 다른 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에서 배운 리더십 스킬을 활용해 좋은 팀워크를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 든든한 연대감을 느끼며 나를 돌아본 시간

강점 발견 등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저를 돌아볼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Managing my mind' 세션을 통해 고객과 선후배 및 동료분들, 부모님, 남편, 자식 등 주변 이들의 마음을 늘 신경 쓰면서 제 마음을 살펴볼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로하며,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만나지 못했을 법한 내 다양한 여성 리더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훌륭한 여성 리더들과 비슷한 고민들을 나누며 든든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 역시도 모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서영
S.Manager
(ICE2)



정소영
S.Manager
(IM3)

○ 갈등 해결 방식과 강점을 이해한 시간

저는 갈등과 친해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토론한 세션이 인상 깊었습니다. 각자의 갈등 해결 방식을 들어보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여러 방안들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웠어요. 또한, 제 강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 강점과 성향의 어떤 면이 회계법인 생활과 업무에 잘 맞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첫 날 들은 수업 중에 자기 연민, 즉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업무를 우선시하고,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밀리면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음 근육을 키우는 멘탈 관리를 통해 건강한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 워라밸의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었던!

이번 프로그램은 제게 새로운 워라밸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회사 일만 몰입해 살아온 것 같아요. 바쁜 중 시간을 내서 집안일도 하는 게, 워라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제 감정을 돌아보고 관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오랜 시간 IT 업계에서 여성 리더로 롤 모델이 되어주신 우미영 대표님의 강의를 직접 듣게 되어 의미 있었고, 자신을 믿고 일한다는 것의 의미와 목표하는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 나갈 것인지 저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하겠습니다!



김명희
Director
(MCS2)

“말은 생각의 외출복이다
언어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언품(言品)

요즘은 언어의 설사 시대다. 악플에션 이미 세계를 제패한 한국이다. 값싼 말(cheap talk)은 그나마 양반이다. 참을 수 없이 천박한 국적 불명의 비속어, 합성어들로 온 사회가 오염되고 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키지만 언어도 생각을 타락시킨다”고 지적했다.

언품(言品)이 인격이다

물건에는 품질이 있고, 사람에겐 인품이 있듯이 말에는 ‘언품(言品)’이 있다. 글이 종이에 쓰는 언어라면, 말은 공중에 쓰는 언어다. 허공에 적은 말은 지울 수도, 태울 수도 없고 게다가 타인을 통해 번식한다. 알고 보면 내가 한 말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논어>에선 입을 다스리는 것을 군자(君子)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다. 군자의 군(君)을 보면 다스릴 ‘윤(尹)’ 아래에 입 ‘구(口)’가 있다.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라는 뜻이다. 일찍이 “언어(language)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단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이다. 나아가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그 삶의 한계다”라고 했다. 언어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구시화문(口是禍門)

예로부터 사람의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담겨 있다고 여겨져 왔다. 이런 신비한 언어의 파워를 일본인들은 ‘언령(言靈, ことだま)’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늘 회자되는 문장이자 인생의 인과 법칙이다. 결국 말이란 자신에게 하는 예언(言僭)이다. 생각해볼수록 아찔한 일이다.

따라서 말이 가진 부작용을 경계하는 글은 동서양 공히 차고도 넘친다. 서양에선 꿈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 무릇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선조들 또한 “조심해야 할 삼단(三端)은 붓끝, 칼끝 그리고 혀끝이다”라고 경고했다.

우선 성경은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한다”고 경고한다. “말은 당신의 입 속에 들어있는 한 당신의 노예지만, 입 밖에 나오게 되면 당신의 주인이 된다”는 섬뜩한 유대인 속담도 있다. <빙점(氷點)>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건 총칼이 아니라 인간의 세치 혀다”라고 말했다. 스페인에는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혀 아래 도끼 들었다”고 늘 경계한 이유다. 불가에선 업을 구분하여 몸으로 짓는 업(身業), 입으로 짓는 업(口業),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意業)으로 구분하고 이를 ‘삼업(三業)’이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 보지만, 대개 문제는 입에서 터진다. 구업에는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욕설이나 험담(惡口), 궤변(綺語)의 4가지가 해당된다. 불자들이 독송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치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바로 이런 입으로 저지르는 행위의 청정성을 얻고자 하는 서원이다. 여기서 ‘수리’는 길상(吉祥), ‘마하수리’는 대길상(大吉祥), ‘수수리’는 극길상(極吉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매우 좋은 일이 생기고 또한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진언이다.

경영자의 언어

한편 경영에 있어서 구업(口業)이라면 결국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귀착된다. 인간의 병이 대개 순환계 질병이듯이 조직의 병도 마찬가지다. 조직(organization)이란 것도 원래 사람과 같은 유기체(organ)를 상징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기업 최고의 ‘업(業)’은 리더십이며, 최후의 ‘보(報)’는 성과라 할 것이다. 깨진 종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법이다. 리더의 언어와 태도는 곧 그 회사의 품격이자 위상이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것처럼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 말은 운(運)이란 말(馬)을 모는 운전기사이기 때문이다. “거친 말을 쓰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너에게 되돌아온다.” 불교판 잠언시집인 법구경(法句經)의 말씀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웃음 뒤의 힘든 얼굴, '가면성 우울' 나의 진실한 감정을 마주하기 위해서

최근 가면성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늘어났다. 가면성 우울증은 우울한데도 계속해서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본인이 슬픈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면성 우울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Masked depression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미소 우울증 등의 용어로 번역해 사용하기도 함.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마음을 다잡거나, '이 정도 일가지고 뭘'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이 쌓이기만 하면 어느 순간 진짜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채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다.

가면성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유쾌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적 교류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다.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추고 가리는 편이다. 가면성 우울과 관련된 공식적인 진단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정신건강 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가면성 우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괜찮아, 이 정도 일 가지고 뭘
...근데 내 진짜 감정은 뭘까?"



가면성 우울증 체크 리스트



- 남들이 아는 나와 진짜 내가 다르다.
- 억지로라도 행복함을 느끼려고 하는 편이다.
- 우울한 기분을 감추기 위해 폭음, 폭식,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일들이 잦다.
- 주변에 종종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얼버무리거나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한다.
- 다양한 신체적 증상(두통, 피로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등)이 있다.
- 내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중 4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내가 힘든 마음이 있는데 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밝고 친절한 모습을 가면으로 삼아 내 감정을 숨기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감정을 숨기고 속이게 된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추스르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는 도식이 있고, 특히 사회적인 역할과 속한 위치가 분명할수록 자신의 내적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많다. 가령, 요즘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일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회적 지도자, 예의 없는 고객에게 참다가 결국에는 화를 내는 서비스직 종사자, 도저히 돈 벌러 나갈 힘이 없다고 가족들에게 말하는 가장을 상상해보자.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다.

자기 역할에 맞게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 감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감정을 운영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가면성 우울에 취약한데, 특히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일부 역할에 몰두한 나머지 혼자 있는 순간에도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곤 한다. 고객 응대를 하느라 하루 종일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 중에는 퇴근해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업무용 말투를 쓰거나 즐겁지도 않은데 웃고 있기도 한다. 사람은 보통 제일 신경 쓰는 역할을 수행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그 역할이 사람을 좌우하기도 한다. 한 역할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각 역할마다 내가 얼마나 그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직장에서는 상대의 요청에 뭐든지 응해줘야 하는 사람이더라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무조건 잘해야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장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다양한 조건의 대인관계를 맺는 중에도 '무조건 잘해야 해'라는 역할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역할 전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생각도 유연하고, 각 역할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여의찮아 나의 감정을 표현할 만한 대상이 없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꺼내어 마주해보는 시간을 갖자.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오늘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일했다'는 자기연민을 느끼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나의 몸과 마음만 아플 뿐이다. 그러니 나에게 소홀해지지 말고, 나 자신이 내 기분에 가장 귀 기울여 주는 청자가 되자.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제7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 자문교수단’ 위촉식 개최

이만우(고려대) · 정도진(중앙대) ·
안수현(한국외대) · 김우진(서울대) 교수 위촉

삼정KPMG가 9월 5일 ‘제7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고,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전년에 이어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2007~2008년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GS홈쇼핑, 현대중공업, 신한금융지주 등 기업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회계 전문가다. 회계정책 발전과 회계 선진화에 이바지한 원로 교수로, 다수의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도진 교수는 前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및 기재부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위원을 거쳐 네이버와 롯데하이마트 감사위원장으로 활약하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활동 중이다.

안수현 교수는 前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 및 금융규제 개혁회의 위원으로 기업법과 금융법 분야에서 연구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9~2021 은행법학회 회장과 2022년 한국경제법학회장으로 현재 SK증권 사외이사, 한국ESG연구소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김우진 교수는 ESG 중 거버넌스 분야의 독보적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지수위원회 위원,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풀무원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자문교수단은 내년 8월까지 임기 1년간 삼정KPMG ACI 활동 전반을 자문한다.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저널’ 등 간행물 기고 작성 및 감수를 비롯해 전문분야와 관련된 감사위원회 활동을 자문한다. 그 외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우측부터) 삼정KPMG 김교태 회장, 중앙대 정도진 교수, 고려대 이만우 교수, 한국외국어대 안수현 교수, 서울대 김우진 교수

삼성포럼, 도규상 前 금융위 부위원장 강연 나서 경제금융 이슈와 대응법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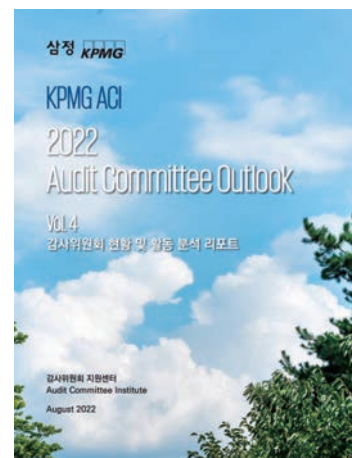
삼성KPMG는 지난 8월 26일 역삼동 삼성KPMG 본사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삼성포럼'을 개최했다. 총 280명이 참가한 이번 포럼에서는 도규상 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경제금융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도규상 前 부위원장은 거시경제를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 동향을 살펴보고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의 주요 이슈부터 자본시장의 과제와 회계 개혁과제까지 폭넓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말미에는 'ISSB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기반으로 ESG 공시의 쟁점과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 발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현황 총망라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8월 29일, KOSPI(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을 총망라한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2022 Audit Committee Outlook)'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증가하고 6년 이상의 장기 재직 감사위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분석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 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고 언급됐다. 아울러 여성 등기이사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여성 등기이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포함됐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새롭게 살펴보기도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은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발간한 이래 매년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을 매년 분석해 오고 있다. 보고서는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2022 Audit Committee Outlook'에 관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KPMG-UL Solutions, ESG 경영컨설팅 및 솔루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삼성KPMG 김교태 회장(좌)과 UL Solutions 정륜 한국 총괄 대표(우)가 ESG 경영컨설팅 및 솔루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KPMG가 UL Solutions와 손잡고 ESG 경영컨설팅 활성화에 나선다. 삼성KPMG와 UL Solutions는 지난 9월 5일 삼성KPMG 본사에서 ESG 경영컨설팅 및 솔루션 활성화를 골자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ESG 리스크 진단, ESG 비전 및 경영전략체계 수립 등을 포함한 컨설팅 서비스를 비롯해 ESG 관련 시험 및 평가 등 ESG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랑나눔] 광복절 맞이해 '한국해비타트 815 런' 후원



삼성KPMG가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를 지원하는 '한국해비타트 815 런' 캠페인에 815만 원을 후원했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한국해비타트 815 런'은 홍보대사 가수 선과 함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삼성KPMG를 포함한 기

개 후원 기업의 기부금과 3천 5백 명의 개인 참가자들의 참가비 외 개인 기부금 약 10억 8백 30만 원은 전액 한국해비타트에 기부되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락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제8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개최



지난 8월 11일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5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개최됐다. 삼정KPMG 회계 전문가들은 ‘생활 속의 경영·경제’를 주제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일상 속 회계 지식을 공유했고 ‘경제와 회계’ 강연을 통해 회계의 기초 개념을 파악하고 직접 투자자가 돼 보는 시뮬레이션 게임도 진행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도전’을 주제로 기업가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했고 이우중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시대의 회계’를 주제로 회계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나연 도선고 학생은 “경영과 경제는 낯선 분야이지만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참여했다”며 “전문가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례로 설명해주 경영과 경제에 한층 더 친숙해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취지로 열렸으며, 2013년부터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은 약 400명이다.

Notice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세 번째 이야기’ ‘제8회 ACI 세미나’ 개최

주제: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14:10~17:30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inar) 진행

신청: 링크(<https://bit.ly/3dBibeU>) 또는 QR 코드

문의: 남연지 연구원(02-2112-3587,

kr-fmsamjongkpmgaci@kr.kpmg.com)

[세미나 신청]



*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상 교육 이수 시간 인정/
감사 및 감사위원, 실무진
제한 없이 참석 가능

2022 New Consultant Recruiting

Find Opportunity Everywhere with **KPMG**

삼성KPMG와 함께 전문가로 성장할 신입 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모집 분야

Management Consulting
Risk Consulting
Digital Consulting
Digital Tech Consulting
Strategy Consulting

• 지원 자격

- 2023년 2월 학사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2023년 1월부터 full-time 근무 가능한 자
- 전공 무관

• 지원 방법

삼성KPMG Career Site 온라인 지원
(<http://career.kr.kpmg.com>)

• 채용 절차 및 일정

- 이력서 접수: 9월 5일(월)~10월 3일(월)
- 1, 2차 면접전형: 11월 중
-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 1일(예정)
- 입사: 2023년 1월 2일(월)

• 문의

삼성KPMG 신입 컨설턴트 공채 채용담당자
- dayeonlee@kr.kpmg.com
- yuhyunroh@kr.kpmg.com



삼성KPMG 컨설턴트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